

# 연역과 귀납의 분류

- 논증론에서 연역/귀납 분류법의 지위

홍경남

**주제분류** 철학, 비형식 논리학

**주요어** 연역, 귀납, 논증 분류, 연역주의, 귀납주의, 다원주의

**요약문**

논리 교육 환경에서 우리는 흔히 연역/귀납 분류법을 채택하여 논증 분석과 평가 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채택의 이유에 관해서는 충실히 논의되지 않았다. 논증 분류의 합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평가적 개방성, 망라적 배타성, 평가적 효용성 요건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연역/귀납 분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접근법과 수행적 접근법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접근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채택하거나 두 가지를 절충하여 해당 접근법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연역주의, 귀납주의, 수정 귀납주의가 그에 해당하고, 그런 시도들은 실패로 귀착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역/귀납 분류법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는 제거주의 입장을 또한 검토했고, 다원적인 논증 분류 범주 안에 연역과 귀납의 범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두 단계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논증 분석과 평가가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면 평가 사후적인 연역/귀납 분류법의 채택은 앞서의 시도들이 갖는 문제를 모두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연역주의나 귀납주의 같은 일원론이나 이원론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논증 분류 범주의 인정이 논증 이론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정이다.

## 1. 서론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교육에서 논증 중심의 학습이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논증은 이유에 근거한 주장을 담고 있고, 이런 이유나 까닭을 찾는 합리성 또는 합당성은 모든 비판적 사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sup>1)</sup> 그런데 논증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방식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 같다. 교양교육에서 논리 교육에 준하는 과목들은 주로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하면서 학기 후반에 귀납 논증을 조금 다루고 오류론을 다루거나 개별 학문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 형태의 이유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논해지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왜 연역을 중심으로 논리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지, 또는 왜 논리 교육에서 연역/귀납의 분류법을 택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해당 분류법이 논증 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면, 해당 분류가 온당하고 논증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논리학을 가르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분류법이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다. 특히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교육을 추구하는 이들은 대개 연역/귀납 분류법이 상당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해당 분류 자체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거나 해당 분류를 달리 수정해야 한다거나 해당 분류는 유지하면서도 뭔가를 부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곤 한다.

연역/귀납 분류법을 어쨌든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통상 논증의 분석/평가 과정을 논증 파악하기-논증 분류하기-논증 평가하기의 삼 단계로 이

---

1) 하병학 교수는 논증론을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 등의 논리적인 영역, 텍스트 분석과 수사학 등의 언어적 영역, 의사소통이론 등의 대화행위이론적 영역을 포함하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병학, 「학제적 학문담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논증론」, 『철학연구』, 58집, 2002, 68-73쪽 참조.

뤄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서 연역/귀납 분류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 삼 단계 중에서 논증 분류하기 단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논증 분류하기’는 논증 평가 단계가 아니라 논증 분석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들은 바로 논증 분석 단계에서 이뤄지는 논증 유형의 분류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평가 기준의 분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견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타당성’과 ‘개연성’이라는 평가 기준의 분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역/귀납의 분류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 ‘연역’과 ‘귀납’의 분류법이 합당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역/귀납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런 정의들이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각 정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접근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논의하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궁리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의 과정이 과연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만약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가 분리되지 못하고 상호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면, 그런 관련성은 어떤 방식의 것인지와 해당 사실이 논증 분석/평가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연역/귀납 분류법이 여러 문제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유지되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해당 분류법이 논증 분석과 평가 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방식을 조명한다. 그래서 논증 평가 이전에 정해진 것이 아닌 평가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연역/귀납 분류법의 가능성을 시험할 것이다.

우선 연역/귀납 논증 구분을 위한 연역/귀납 정의의 적절성을 심리적 관점과 수행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런 논의는 『비형식 논리 Informal Logic』 저널 초창기에 연역/귀납 논쟁을 촉발시킨 웨들(Perry Weddle), 포어(Samuel D. Fohr), 히치콕(David Hitchcock), 고비어(Trudy Govier) 및 그 논의를 계승한 바울스(George Bowls), 애니스(Robert H. Ennis)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 2. 연역/귀납 분류의 합당성 요건과 연역/귀납의 정의

### 1) 연역/귀납 분류의 합당성 요건

연역/귀납 분류가 모든 논증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 합당한 분류법인지 결정할 최소한의 적절성 요건으로서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제기되곤 한다.<sup>2)</sup> 첫째, 연역/귀납 분류는 평가에 열려 있어야 한다(좋은 연역/귀납 논증과 나쁜 연역/귀납 논증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 이를 ‘평가적 개방성’ 요건이라고 칭할 수 있다. 둘째, 연역/귀납 분류는 모든 논증을 망라해야 하고 연역이면서 귀납인 논증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망라적 배타성(망라성과 배타성)’ 요건이라고 칭할 수 있다. 셋째, 연역/귀납 분류는 논증 평가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평가적 효용성’ 요건이라고 칭할 수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요건인 평가적 개방성 요건이 성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연역/귀납 분류법이 적어도 각 분류 범주에서 좋고 나쁜 논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연역이 없거나 나쁜 연역이 없거나 좋은 귀납이 없거나 나쁜 귀납이 없거나 할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좋은 연역만이 있고 나쁜 연역은 없다거나 좋은 귀납만이 있고 나쁜 귀납은 없다고 한다면, 연역이나 귀납이라는 논증 유형의 분류 범주는 논증 평가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셈이 되어버릴 것이다. 소위 연역의 분류 범주는 정확히 ‘좋은 연역’에 대응하고 소위 귀납의 분류 범주는 정확히 ‘좋은 귀납’에 대응하기에, 논증의 분석 및 평가에서 유효한 것은 좋거나

---

2) Samuel D. Fohr,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2, No. 2 (1979), 5-8쪽, David Hitchcock, "Deductive and Inductive: Types of Validity, Not Types of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9-10쪽,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16, No. 3 (1994), 159-184쪽, Mark Vorobej, "Defining Deduction," *Informal Logic* Vol. 14, Nos. 2&3 (1992), 105-118쪽 참조.

나쁠 수 있는 논증 유형의 분류 범주가 아니라 다만 ‘좋은 연역’과 ‘나쁜 귀납’을 특징짓는 평가 기준(‘타당성’과 같은)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로베이(Mark Vorobej)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논증 유형에 관한 어떤 정의에든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절성 조건은 수용가능하고 수용 불가능한 (좋은 나쁜) 사례들이 해당 유형의 논증에 모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정의가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3)</sup>

연역/귀납 분류가 모든 논증을 망라하면서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두 번째 요건은 왜 필요한 것인가? 우선 연역이면서 귀납인 논증이 있다면 이는 연역과 귀납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닌 논증이 있다면 모든 논증은 연역이거나 귀납이라는 연역/귀납의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스(George Bowles)는 또한 논증 유형의 분류에서 그 범주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은 경제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런 망라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연역/귀납 구분은 똑같은 논증이 즉각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구분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어야 한다.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을 쓸모없이 늘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sup>4)</sup>

세 번째 요건인 평가적 효용성 요건은 연역/귀납 분류가 논증 평가에 필수적인 것이거나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해당 분류법

3) Mark Vorobej, "Defining Deduction," *Informal Logic* Vol. 14, No. 2&3 (1992), 105쪽.

4)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16, No. 3 (1994), 159쪽.

5)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0쪽.

이 논증 평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애써 그런 분류를 채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런 분류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평가 단계로 진입하면 된다.

이제 연역/귀납의 분류에 대한 접근법을 크게 ‘심리적 접근법’과 ‘수행적 접근법’으로 나눠서 그에 해당하는 분류법이 과연 평가적 개방성, 망라적 배타성, 평가적 효용성 요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 2) 연역/귀납 분류에 대한 접근 방식

### (1) 심리적 접근법 대 수행적 접근법

연역/귀납 분류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심리적 접근법과 수행적 접근법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접근법은 바로 연역 또는 귀납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심리적 접근은 연역이나 귀납을 논자의 심리적 요인인 의도, 믿음, 주장 등에 의해 정의하는 데 반해서, 수행적 접근은 그런 정의에서 논자의 심리적 요인을 배제하고 논증이 갖는 실제적인 성격 내지는 효과에 의해서 정의한다.

#### <심리적 접근법>

연역. [정의]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이고 필연적이며 확실하게 지지한다(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됨은 불가능하다)고 의도한다(또는 믿거나 주장한다).

귀납. [정의]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한다고 의도한다(또는 믿거나 주장한다).

이런 심리적 접근법의 정의 방식을 취하는 논리학자에는 코피(Irving M. Copi), 레셔(Nicholas Rescher), 포어(Samuel D. Fohr), 보로베이(Mark Vorobej), 윌뱅크스(Jan J. Wilbanks) 등이 있다.

<수행적 접근법>

연역. [정의]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이고 필연적이며 확실하게 지지한다.  
 귀납. [정의]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수행적 접근법의 정의 방식을 취하는 논리학자에는 새먼(Wesley C. Salmon), 웨들(Perry Weddle) 등이 있다.

(2) 심리적/수행적 접근법에 대한 평가

수행적 접근법에 따른 연역/귀납의 정의는 연역/귀납 분류법의 합당성 요건 중 특히 평가적 개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된다. 연역 논증이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이고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논증이라면, 단지 그런 성격을 갖는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 논증이 될 것이고 부당한 논증은 연역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해 보이는 논증을 귀납 논증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이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이라면 개연성이 있는 강한 논증만이 귀납 논증이 될 것이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약한 논증들은 귀납 논증에 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망라적 배타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약한 논증은 아예 논증이 아니라고 간주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과 (귀납적으로) 강한 논증이다. 타당하다거나 강하다는 것은 평가적 개념이기에 결국 연역이나 귀납이라는 분류 범주는 논증 평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는 평가적 효용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뜻한다.

심리적 접근법에 따른 연역/귀납의 정의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이고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의도한 논증은 실제로 그런 의도를 달성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수 있다. 의도를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 즉 의도와 사

실이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는 해당 논증을 연역적으로 좋은(타당한) 논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즉 의도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해당 논증을 연역적으로 나쁜(부당한) 논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강한 지지를 의도한 논증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귀납적으로 강한) 논증과 나쁜(귀납적으로 약한) 논증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연역적 타당성과 귀납적으로 강한 지지를 동시에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배타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그 두 가지 의도가 우리가 논증에 관해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면 망라성의 요건 또한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접근법에 따른 정의로 인해 어떤 논증이 귀납인지 연역인지 확실히 분류할 수 있다면 이는 또한 그에 합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역이라면 추론과 관련하여 단지 타당성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귀납이라면 개연성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어는 해당 분류법이 논증 평가에 기여하는 방식의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 논증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과 마주할 때 철학자들은 통상 그것이 분석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야 그것을 시험할 것이다. 달리 말하여 그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은 그 가능한 판단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귀납 논증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그 전제들이 그 결론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그들이 그것을 연역 논증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그 전제들이 그 결론을 개연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여부를 시험하지 않는다.”<sup>6)</sup>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적 접근법에 비해 심리적 접근법이 더 우월한 것이고 연역/귀납 분류와 관련하여 심리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온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심리적 접근법은 또한 그 방식대로 나

6) Samuel D. Fohr, "Deductive-Inductive: Reply to Criticisms,"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5쪽.

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그와 관련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때만 해당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접근법에 대해 흔히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sup>7)</sup>

첫째, 논리학자가 아닌 이들 또는 연역논리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은 연역적인 ‘타당성’ 개념의 의미를 모를 수 있고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의도할 수 없다. 연역적 타당성과 관련된 ‘필연성’, ‘결정성’, ‘확실성’의 의미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필연적이다’, ‘결정적이다’, ‘확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흔히 불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필연적인 지지를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꼭 연역적인 ‘타당성’을 의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우리의 의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인 ‘전건긍정식’이나 ‘선언삼단’의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의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증은 연역 논증이면서 동시에 귀납 논증이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우리는 논증을 제시하며 단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만 의도하지 정확히 어느 정도로 뒷받침하는 것인지 의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능히 논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같은 논증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과감한 사람은 전제와 결론 간의 연결 강도 또는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 정도를 보다 강한 것으로 의도하고 소심한 사람은 보다 약한 것으로 의도할 수 있다.

7) David Hitchcock, "Deductive and Inductive: Types of Validity, Not Types of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9-10쪽,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Informal Logic* Vol. 3, No. 2 (1980), 8-9쪽 참조. Trudy Govier, "More o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7-8쪽,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16, No. 3 (1994), 164-175쪽, Robert H. Ennis, "Argument Appraisal Strategy: A Comprehensive Approach," *Informal Logic* Vol. 21, No. 2 (2001), 103-112쪽 참조.

다섯째, 논자가 없거나 의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논증이 있을 수 있다.

여섯째, 논자는 전제와 결론의 연결 강도에 관해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고서도 설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논증 평가는 논증에 대한 것이지 논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논증을 이루는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지 그 연결 강도에 관한 논자의 주장이 올바른지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논자가 연역적 ‘타당성’의 의미를 모를 수 있다거나, 안다고 해도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지지 정도를) 분명하게 의도하지 않거나 잘못 의도하거나 아예 의도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논증 평가를 위해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거나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의도’와 같은 논자의 심리적 상태가 연역/귀납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심리적 접근법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합당한 것이라면 해당 접근법에 대한 검토는 수행적 접근법에 대해서 만큼이나 신중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각각의 접근법에 자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시험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율을 거쳐 연역/귀납 분류법을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 3) 연역/귀납 분류법의 문제 대응하기

연역/귀납 분류에 관한 수행적 접근법과 심리적 접근법에 자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크게 ‘오직 연역만이 있다’라고 주장하여 이분법의 한 축을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반을 줄이거나, 두 분류 범주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 접근법을 채택하거나 양 접근법을 혼용 절충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거나, 아예 연역/귀납 분류 자체를 논증의 분석/평가 과정에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논증 분류에 따른 문제 자체를 없애 버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1) 연역 일원주의

‘오직 연역만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연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 하든 배타성의 문제는 쉽게 피할 수 있다. 또한 망라성과 평가적 효용성의 문제는 주어진 연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논증을 명시적으로 연역 논증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적 개방성의 요건 충족은 이 전략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웨들(Perry Weddle)과 그로크(Leo Groarke)가 이 노선에 서 있기에 그들의 주장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전략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웨들은 일단 ‘연역’에 관한 정의에서 코피(Irving M. Copi) 방식의 심리적 접근법을 비판한다. 코피는 ‘연역’을 “전제가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논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정의에서 ‘주장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논자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웨들에 따르면, ‘의도’는 논증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없다. 논자는 실제 논증이 어떤 것이든 예컨대 아무리 약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지지를 의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들은 논자의 의도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 대상이어야 할 ‘실제’ 논증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어진 전제들이 그 결론을 낳는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해당 전제들이 결론을 낳는지’이다. (---중략 ---) 결론의 강도는 논자가 그것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그것에 앞서고 그것과는 무관하다.”<sup>8)</sup>

또한 웨들에 따르면 코피가 ‘귀납’이라고 분류한 모든 논증은 ‘연역’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코피에서 귀납은 ‘전제가 결론을 결

8) Perry Weddle, "Good Grief! More on Deduction/Induction,"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12쪽.

정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다소간 지지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논증'으로서 정의되는데, 웨들은 이 '다소간의 지지'를 '에두르기' 내지는 '채우기'를 통하여(관점을 달리하거나 필요한 변화 내지 변경을 가하여) 결정적인 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통상 귀납으로 간주되는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에두름을 통해 적절한 변화를 가한다면 충분히 연역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 결론이 '개연성'을 담고 있는 다음 논증을 고려해보자.

“저기압권이 알래스카 만으로부터 이동할 때 통상 다음날 비가 온다. 그리고 저기압권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웨들은 이 논증의 전제들을 적절하게 에두를 때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거짓이 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웨들의 말은 논리적 불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제의 조건이 성립한다고 해도 어떤 다른 우연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일을 우리는 능히 모순 없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들은 결국 이런 자신의 연역 관념에 기초하여 유비 논증, 인과 논증, 권위에 의거한 논증 등이 주의 깊게 추론된 것이기만 하다면 모두 연역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0)</sup>

이제 전통적으로 귀납이라고 상정되었던 많은 논증들이 에두름이나 채움을 통해 연역으로 판명되기에, 웨들이 보기에 '귀납'의 진영에 속하는

---

9) Perry Weddle, "Inductive, Deductive," *Informal Logic* Vol. 2, No. 1 (1979), 3쪽.  
10) Perry Weddle, "Inductive, Deductive," 4쪽. 웨들이 사례로서 인용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표본 S가 xyz를 드러내고 S가 국가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 국가는 xyz를 드러낸다.” “영수의 권고는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영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의 놀라운 성실성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독소에 대한 흰 쥐와 인간에서의 반응은 신진대사와 체중의 차이를 허용할 때 아주 유사한 것이 드러났다.”

것은 없게 되어 연역/귀납의 분류법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단지 ‘연역’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앞서 지목했듯 망라적 배타성과 평가적 효용성의 요건은 문제없이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평가적 개방성’의 요건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든 논증은 에두름이나 채움을 통해 연역 논증이 될 수 있기에 망라적이고, 오직 연역만이 있기에 배타적이며, 추론에서 연역적 결정성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평가적으로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추론 상으로 좋은 연역 논증만이 존재하고 추론 상으로 나쁜 연역 논증이란 존재치 않게 되기에, 평가적으로 개방적이지 못하다.

그로크는 ‘오직 연역만’이라는 웨들의 입장을 ‘연역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승하면서 그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그로크는 연역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자연언어 논증이 연역 논증을 정식화하는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로크는 연역적 타당성을 수행적 접근법을 채용하여 역시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됨은 불가능한 논증”으로 정의하면서도 이 연역적 타당성을 ‘형식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사실 웨들의 견해를 확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그로크는 개연적인 주장을 결론으로 담고 있는 논증이 능히 연역 논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역논증은 ‘확실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보존’하는 논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 그로크의 사례를 보자.<sup>11)</sup>

(사례 1) “2700만 캐나다 인구는 다음 10년간 1000만명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3700만명에 달할 것이다.”

(사례 2) “세계화를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서 바라보는 유럽 나라들은 번영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세계화를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서 바라본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번영할 것이다.”

11) Leo Groarke, "Deductivism Within Pragma-Dialectics," *Argumentation* 13, 1999, 4-8쪽.

그로크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연역 논증이며 제안된 결론들이 제안된 전제들처럼 개연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견상 타당해 보이지 않는 논증을 그로크가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연역논증으로 재구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3) “96퍼센트의 성인 미국인들은 주당 열 시간 이상 티비를 시청한다. 데비스는 성인 미국인이다. (데비스는 이 96퍼센트 안에 속한다.) 따라서 데비스는 티비를 한 주에 열 시간 이상 시청한다.”
- (사례 4) “지금까지 인간이 만난 모든 오소리는 우호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었다. (오소리는 모두 지금까지 인간이 만난 오소리들과 같다.) 따라서 모든 오소리는 우호적이지 않고 공격적이다.”
- (사례 5) “‘하울’은 피상적이고 구식이다. ‘세컨드 커밍’은 심오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심오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는 피상적이고 구식인 시보다 더 훌륭한 시다.) 따라서 ‘세컨드 커밍’은 ‘하울’보다 훌륭한 시다.”
- (사례 6) “상원의원인 스미스는 독립기념일 날 태어났다.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사람은 훌륭한 상원의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훌륭한 상원의원일 것이다.”

그로크는 이렇게 자연언어 논증을 생략된 전제를 추가하여 모두 쉽게 연역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로크에 따르면, 어떤 논자들 논증을 제시할 때 ‘만약 내 논증의 전제들이 참이라면 그 결론은 참이다’라는 진술에 필히 동의하거나 ‘가담(commitment)’한다. 그리고 이런 가담은 ‘논증’과 ‘주장’이라는 발화 행위들이 갖는 함축내용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귀결한다. 왜냐하면 그로크가 보기에 전제들에 의거하여 결론을 옹호하고 있는 논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론이 참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자신이 제시한 전제들이 그런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로크에 따르면, 이런 공언은 곧 전제들이 결론을 함축하고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라고 논자가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다.<sup>12)</sup>

위 사례 5와 관련하여 피상적인 시가 심오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보다 더 나은 기술적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납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크에 따르면 이것은 오히려 논자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한 미-표현된 유보 사항을 임의적으로 논증으로 읽어 들이는 문제를 담고 있다. 연역주의자는 이런 상황에서 “심오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는 피상적이고 구식인 시보다 더 훌륭한 시일 것 같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로크는 이런 미-표현된 전제들이 흔한 논증이 수용되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결정할 때 논의의 초점이 될 필요가 있는 가정들을 드러내곤 하기에 연역주의적 재구성이 논의나 문제 해결에 극히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로크에 따르면, 위 재구성된 논증 사례에서 논증적인 쟁론은 미-표현된 전제들에 삽입된 가정들이 수용가능한지, 참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하는 물음에 의해 유용하게 촉진될 수 있다. 오소리는 모두 우호적이지 않고 공격적이라고 결론짓는 사례 4의 경우에 논자가 물어야만 하는 문제는 과연 모든 오소리가 이제까지 인간이 발견한 오소리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로크는 이런 가정들을 미-표현된 전제들에 담긴 것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연역주의 내지는 연역주의적 접근이 논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서 웨들의 연역주의에 대해 제기했던 “모든 논증이 타당하게 구성될 수 있다면 부당한 논증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평가적 개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반대에 응수해야 할 차례다. 이에 대해 그로크는 자신의 접근이 나쁘거나 부당한 논증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논증은 비판적 논의 규칙들을 고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부당한 추론 형식의 사례기 때문에 나쁜 논증일 수 있다. 우

12) Leo Groarke, "Deductivism Within Pragma-Dialectics," 6쪽 참조.

리는 그런 경우들에서 실패를 좋은 논증의 본성에 관한 논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그릇된 미-표현된 전제로서 인식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해당 경우들은 논자들이 좋은 연역 논증을 정식화하기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우리의 직관에 어울린다. 추론하는 이들이 가장 투명한 연역 추론의 경우에도 실수하곤 하기에 때때로 실패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많은 비판적 논의 사례들에 필히 등장하는 훨씬 더 복잡한 추론들이라면 당연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sup>13)</sup>

물론 그의 이런 응수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떻게 ‘연역’이라는 범주 내에 부당한 논증이 있을 수 있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로크는 자연언어 논증들을 위해 창출된 연역주의가 좀 더 복잡한 논증 도식들을 연역 논증의 사례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귀납적 일반화에 의거한 논증, 권위에 의거한 논증 등은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관련해서 관찰하지 않은 것들은 관찰된 것들과 같다”,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관련해서 권위가 옳다”와 같은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연역 논증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에, 모두 연역 논증 도식들에 해당한다. 귀납적 일반화의 경우에 우리는 시험된 X들과 다른 X들이 같다고 믿지 않는 한 ‘모든 X들’은 어떠어떠하다는 결론을 합당하게 제안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권위에 의거한 논증의 경우에 논쟁이 되는 문제에 관해 권위가 옳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한, 권위에 호소하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sup>14)</sup>

그로크는 연역주의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첫째, 연역주의는 두 추론 개념들을 하나로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언어 논증에 관한 우리의 설명을 크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귀납추론의 논리에 관한 잘 확립된 설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흔히 연역/귀납 분류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며 전제가 결론을 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종류의 연결 관

13) Leo Groarke, "Deductivism Within Pragma-Dialectics," 9-10쪽.

14) Leo Groarke, "Deductivism Within Pragma-Dialectics," 13쪽.

계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 예컨대 고비어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연역적 함축과 개연적 추론의 차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필연적인 연결 관계와 개연적인 연결 관계를 구분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를 가리키는 분명한 일상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와 ‘이어야만 한다’와 같은 지시어는 흔히 귀납 논증 같아 보이는 것을 지시하는 데도 사용되기 때문이다.<sup>15)</sup> 통상 연역/귀납 분류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문제점에 비추어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구분을 논자의 의도에 호소하여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그로크에 따르면, 의도는 내적인 마음 상태로서 외부에서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설혹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이론적인 구분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통상의 논자들이 자신들의 논증을 연역이나 귀납으로 명시적으로 의도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제대로 그런 의도를 읽어낼 수 없다.

그로크는 고비어가 사실상 연역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했던 연역주의의 가능한 장점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고비어에 따르면, 연역주의는 다음 이점을 갖는다. 단지 하나의 논증 유형만이 있기에 논증을 분류할 필요도 없고 분류 기준을 세울 필요도 없다. 하나의 범주만이 있기에 분류를 벗어나는 사례들의 문제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체계화된 형식적인 연역적 타당성의 기준들이 존재하기에, 어떤 논증 유형이 가장 강하거나 설득력이 있는지 하는 문제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 논증 유형만이 있을 것이고 모든 논증이 만족시켜야 할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sup>16)</sup>

그로크는 많은 상이한 종류의 연역 논증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넓은 연역주의가 인정케 한다고 바라보면서 좋은 논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설파하지 않고 비판적 논의 규칙들, 전통적 오류들, 전제 수용가

15) Trudy Govier, *Problems i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Foris Publications, 1987, 46쪽.

16) Trudy Govier, *Problems i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24쪽.

능성을 지배하는 원리들 등에 의해 함축되는 상이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그것이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로크가 말하는 기준들은 결국 타당성 기준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그의 이런 주장은 논증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그다지 새로운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타당성 기준을 유일한 논증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역 논증만이 존재한다고 그로크는 주장하고 있기에, 타당성 기준에 어긋나는 논증들은 그로크의 연역주의에서도 연역 논증이 되지 못한다. 즉, 연역 논증에 오로지 추론 상으로 좋은 논증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웨들의 경우에 뒤이어 그로크의 연역주의도 ‘평가적 개방성’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로크는 앞서 인용문에서 투명하게 연역적이지 않은 논증을 연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떤 논자든 ‘만약 제시한 논증의 전제들이 참이라면 그 결론은 참이다’라는 가정에 “가담”한다는 것을 주목함에 의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로크는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다’라는 진술이 연역적 함축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담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로 논증을 제시하는 논자는 연역적 타당성보다는 훨씬 약한 연결 관계를 의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자의 ‘의도’에 의거하여 연역과 귀납을 나누고 또한 좋은 연역/귀납과 나쁜 연역/귀납을 나누는 논리학자들은 바로 그런 사실에 기대어 해당 구분을 이뤄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그로크의 ‘가담’ 주장은 단순히 논자가 항상 ‘연역적 타당성’을 의도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로크는 ‘논증’이 ‘연역적 타당성’의 기준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증명했어야 한다. 또한 ‘가담’ 개념은 아직 좋은 연역논증과 나쁜 연역논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로크에 따르면, 논자는 항상 좋은 연역논증이 결과하게끔 ‘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 (2) 연역/귀납 이원주의

‘오직 연역만’이 아니라 연역과 귀납이라는 이원적인 논증 범주를 모두 인정하면서 두 접근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 ① 귀납주의

바울스(George Bowles)는 그로크의 엄밀한 ‘가담’ 개념 대신에 보다 느슨한 ‘귀속(attribu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바울스에 따르면, 한 논증이 연역일 필요충분조건은 그 결론과의 결정적인 ‘지지 관계’(바울스의 용어로는 ‘긍정적 관련성’)가 그 전제들에 ‘귀속’된다는 것이고 귀납일 필요충분조건은 그 결론과의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가 그 전제들에 ‘귀속’된다는 것이다.<sup>17)</sup> 전제가 결론과 ‘지지 관계’를 맺는다 함은 전제가 결론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기에, 연역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결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논증이고 귀납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비결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논증이다. 이렇게 바울스의 입장처럼 연역 논증 이외에 귀납적인 논증 유형을 또한 인정하는 이원적인 입장을 연역주의와 대비하여 ‘귀납주의’라고 칭해볼 수 있다.

바울스의 ‘귀속’ 개념에 대해 “그저 어떤 지지 내지는 지지 관계를 귀속하는 것으로서, 결정적인 귀속도 아니고 비결정적인 귀속도 아닌 귀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바로 ‘귀속’ 개념의 망라성에 대한 반대다. 바울스는 이런 반대에 대응하여 귀납의 정의를 “한 논증이 귀납일 필요충분조건은 그것이 연역이 아니라는 것이다”로 수정한다.<sup>18)</sup> 이런 수정된 정의에 따르면, 그저 어떤 지지 내지는 지지 관계는 결정적인 지지 관계가 아니기에 ‘귀납’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 해당 구분은 망라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이제 좋은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한 논증이 좋은 논증일 필요충분조건은 전제가 결론과

17)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4쪽.

18)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5쪽.

맺는 지지 관계에서 귀속된 지지 정도와 실제적인 지지 정도가 일치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는 곧 각 분류 범주에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평가적 개방성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해당 구분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반대가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상이한 논자들이 똑같은 논증을 제시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전제들에다 귀속시키고 다른 이는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 똑같은 논증이 연역이자 귀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과감한 논자는 실제로는 귀납인 논증을 연역으로 의도할 것이고 소심한 논자는 실제로는 연역인 논증을 귀납으로 의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스는 논자의 의도 역시 논증 유형을 식별하는 요소일 수 있다고 응수한다. 바울스에 따르면, 논자가 없는 논증조차도 귀속의 요소를 갖는다. 예컨대 해변의 조약돌이 우연히 질서 있게 배열되어 한 논증의 전제와 결론 및 전제가 결론과 맺는 소정의 지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배열된 알록달록한 해변의 조약돌은 논증의 전제들(‘모든 개는 벼룩을 가진다. 피도는 개다.’)과 결론(‘피도는 벼룩을 가지고 있다.’)인 명제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는 벼룩을 가지고 피도가 개라는 것은 결합하여 피도는 벼룩을 가진다는 것과 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다른 한 명제를 표현한다. 논자가 연루되는 경우들에서조차도 그가 그런 귀속을 행하는 한 명제를 믿거나 표현하는 한에서만 그는 전제들에다 결론과 맺는 어떤 정도의 지지 관계를 귀속시킨다. 그렇다면 모든 논증에서 귀속의 한 행위자는 그런 명제다.”<sup>20)</sup>

이렇게 귀속의 행위자가 명제라고 간주한다면 논자의 의도 등도 논증을 표현하는 명제 속에 녹아드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우리가 찾아내고 식별해야 하는 논증은 다만 전제와 결론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

19)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6쪽.

20)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4쪽.

라 논자의 의도를 담은 논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자가 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귀속시키는 논증과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귀속시키는 논증은 상이한 의도를 담고 있어 결코 같은 논증이 될 수 없기에 다른 논증으로 식별해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지지 관계의 귀속이라는 표현에서 ‘결정성’은 철학자와 논리학자의 개념(경험적 결정성이 아니라 논리적 결정성인)으로서 일반적인 논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이 가리키는 바를 의도할 수는 없기에, 많은 논증들이 연역도 귀납도 아닌 것으로서 해당 구분은 여전히 망라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반대할 수 있다. 바울스는 이런 반대에 대해, 논자가 전제들에 귀속되는 결론과의 결정적인 지지 관계와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 간의 차이를 이해하거나 또는 그저 ‘지지 관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응수하고 있다. 그저 지지 관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도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논증은 ‘귀납’이 될 것이고, 그것조차 모른다면 그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스에 따르면, 논자가 굳이 결정적인 지지 관계가 경험적 연결이 아니라 논리적 연결의 일종임을 이해해야 할 필요란 없다. 예컨대 동상은 박테리아 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지만, 비록 내가 바이러스 감염과 박테리아 감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동상에 걸렸다고 나는 말할 수도 있다.<sup>21)</sup> 여기서 바울스는 논리적/경험적 결정성의 구분을 배제한 결정성 일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하다. 즉 타당성, 결정성 등의 개념을 그 형식적 의미를 넘어서 아주 느슨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웨들이나 그로크의 방식과 일치한다.

끝으로 ‘평가적 효용성’ 측면에서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논증에 대한 논리적 평가는 단지 실제적인 지지 관계에 대한 것이지 귀속된 지지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어떤 논리적 관계가 실제로 그 논증의

21)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8쪽.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유지되는지가 문제인 것으로서, 한 논증에 대한 논리적 평가는 그 결론과 전제들이 맺는 귀속된 지지 관계의 정도와는 무관하다. 그런 지지 관계는 우리에게 논자의 마음 상태에 관한 뭔가를 말해줄 수도 있어 논자에 대한 평가에는 부속할 수 있겠지만, 그 논증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따라서 이렇게 연역 논증을 귀납논증과 구분하는 방식은 한 논증을 평가하는 일에서 쓸모없다.

바울스는 이렇게 응수한다. 한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알지 않고서는 그 논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한 논증의 전제들이 그 결론과 비결정적인 지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아는 것은 결론과의 결정적인 지지 관계가 그 전제들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지 않는 한 그 전제들과 결론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 논증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한다. 한 논증이 그 전제들과 결론의 관계와 관련하여 좋은 논증일 필요충분조건은 그 전제들이 결론과 맺고 있는 지지 관계의 실제적인 정도가 귀속된 것과 일치하거나 귀속된 것의 한계들 안에 전적으로 포함되거나 한다는 것이다.<sup>22)</sup> 하지만 이런 바울스의 응수는 위 반대의 논점과 관련하여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논증의 좋음 여부가 귀속된 지지 관계와 사실적인 지지 관계의 일치에 달려 있음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스의 귀납주의는 망라적 배타성의 요건은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평가적 개방성 요건(그리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평가적 효용성 요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심리적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논자의 의도’에 의한 경우에 비해 뚜렷한 개선점이 있다면 논자가 없는 경우나 논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없는 경우에 대비했다는 점일 뿐이다. 귀속에 의해 할당되는 ‘의도’를 논증 외적인 것으로 보거나 논증 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런 의도가 논증 외적인 것으로서 논증 분류의 기준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해당 의도(바울스의 경우 ‘결정적 지지 관계’의 의도)를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

22) George Bowles,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168-169쪽.

어야 한다. 하지만 심리적 접근에 대한 반대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이런 논증 외적인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기란 극히 어렵다. 그래서 바울스는 그런 의도를 논증 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논증 내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이번에는 수행적 접근에 자리한 문제를 그대로 갖게 된다. 논자의 의도가 논증에 내적인 것이라면 의도한 논증과 실제적 논증은 일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는 그로크의 ‘가담’ 개념과 바울스의 ‘귀속’ 개념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일단 ‘가담’이나 ‘귀속’ 개념은 모두 누군가가 가담하거나 누군가가 귀속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하여 꼭 그 누군가(‘논자’)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 논증이라면 어떤 것이든 어떤 명제(“만약 논증의 전제들이 참이라면 그 결론은 참이다”)에 가담하거나 어떤 명제(“논증의 전제들은 결론과 지지 관계를 맺고 있다”)를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이 두 개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내용에서다. 하나는 모든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이 연역적 타당성의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전제와 결론이 귀납적이거나 연역적인 타당성의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상의 차이가 어떻든 이 두 개념에 의한 연역의 분류 범주에서 좋고 나쁜 논증의 평가를 위한 평가적 개방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가담’이나 ‘귀속’이 모든 논증에 대해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논증 그 자체가 갖는 한 성질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 논증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외적 기준(예컨대 바울스에 따르면, 그런 논증과는 구분되는 실제적인 논증)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② 수정 귀납주의

윌뱅크스(Jan J. Wilbanks)는 심리적 접근과 수행적 접근을 조합하여 연역/귀납 분류에 대한 절충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윌뱅크스에 따라

면, 한 논증이 연역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만 한다.<sup>23)</sup>

- (가) 화자는 결론이 (하나 이상의)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 (나) 화자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귀결되지 않는다.
- (다) 화자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전제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또한 한 논증이 귀납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sup>24)</sup>

- (라) 화자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전제들에 의해서  $n$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결론이 전제들에 의해서  $n$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
- (마) 화자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전제들에 의해서  $n$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전제들에 의해서  $n$ 보다 작은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
- (바) 화자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전제들에 의해서  $n$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전제들에 의해서  $n$ 보다 큰 정도로 그저 개연적인 것이 된다.

윌뱅크스의 특이점은 연역/귀납의 분류가 단지 심리적인 것(화자의 주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적인(수행적인) 것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것

---

23) Jan J. Wilbanks,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Argumentation*, 2010, 24, 111쪽.

24) Jan J. Wilbanks,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115-116쪽.

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적 접근에서 논자가 전제와 결론의 필연적인 추론 관계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필연적인 관계가 자리하고 있을 경우 해당 논증은 귀납 논증으로 처리되었다. 그래서 연역 이면서 귀납인 논증이 존재하게 되고 배타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월뱅크스의 접근법에 따르면, 이런 논증은 연역 논증이다. 다만 그 지위가 타당(논자가 필연적인 관계를 의도하고 실제로도 필연적인 관계인 경우)하지도 부당(논자가 필연적인 관계를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개연적인 관계가 자리할 경우)하지도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 월뱅크스는 이처럼 논자의 의도가 ‘과소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히 ‘비-타당non-valid’하다고 평가한다.<sup>25)</sup> 즉 해당 경우를 타당성 여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분법은 귀납의 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논자가 n 정도의 개연성을 의도한 경우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면 해당 논증은 귀납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못한 정도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면 해당 논증은 귀납적으로 부당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정도의 개연적인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면 해당 논증은 귀납적으로 비-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두 접근법을 혼용하면서 귀납주의를 수정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수정 귀납주의’라고 칭해 볼 수 있다.

월뱅크스의 접근은 일단 심리적 접근에 자리한 연역이면서 귀납인 논증을 배제하는 문제 및 수행적 접근에 자리한 한 분류 범주에서 좋고 나쁜 논증을 구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류 범주 안에서 타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 논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증 분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논증 평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평가적 효용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역과 귀납 각각에서 비-타당한 논증은 객관적으로 충실한(필연적 지지 내지는 강한 지지) 추론 관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실제 논증 평가에서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25) Jan J. Wilbanks,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115-118쪽 참조.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증 분류단계에서 이미 논증이 실제로 어떻다는 평가를 내려야만 하기에 월뱅크스의 접근법에서는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논증 분류로 인해서 평가할 수 없는 논증이 생겨난다면 아예 그런 분류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 ‘제거주의’가 바로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 (3) 제거주의

앞서 연역/귀납의 분류법에서 연역주의의 입장을 택해서 오직 ‘연역’의 논증 유형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논증 유형에서 부당하거나 나쁜 논증에 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평가적 개방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논증 유형의 분류 자체를 하지 않는(해당 단계를 없애 버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제거주의’ 입장이라고 칭해보자. 히치콕(David Hitchcock), 고두(G. C. Goddu) 및 애니스(Robert H. Ennis) 등이 바로 이런 노선에서 있다.

히치콕은 우선 포어가 주장하는 ‘의도’가 논증 평가에서 기껏해야 발견법 상의 가치를 지닐 뿐이고 무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논증에 관해서든 물어질 수 있는 주요한 물음은 그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다. 그 연결에 관한 논자의 주장이 올바른가 여부는 그런 주요한 물음이 아니다. 또한 웨들이 주장하는 ‘채움’이나 ‘에두름’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논증의 전제와 결론이 일단 ‘개연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해보자. ‘개연적이다’라는 말은 흔히 ‘인식적 개연성(손안의 증거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개연성은 주관적인 진리 값을 가질 것이고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때 능히 변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를 아무리 충실하게 채우거나 에두른다고 하더라도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나아가 히치콕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다’라는 형태의 숨은 전제를 덧붙이는 방식의 에두름에 대해 그런 방식의 쓸모없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한 강한 전제를 덧붙임으로써 주어진 논증을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기껏해야 한 귀납적으로 강한 논증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논증들에서 연역적인 연결보다 약한 연결들을 얼마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의 논증에 그런 보다 약한 연결이 자리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똑바른 것으로 보인다.”<sup>26)</sup>

히치콕은 이런 거절에 뒤이어 논증 유형의 구분을 버리고 단지 평가 기준의 구분만을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나는 우리가 연역/귀납 구분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단, 논증 유형들 간의 구분으로서가 아니라 타당성 유형들 간의 구분으로서 유지해야 한다. 아니면 고비어와 같이 평가 기준들 간의 구분으로서 유지해야 한다. 한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할 필요충분조건은 그 전제들의 진리가 그 결론의 진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됨은 불가능하다. 전제들이 참이고 그 결론이 거짓인 한 가능한 사태에 관한 기술은 한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이다. 한 논증이 귀납적으로 강할 필요충분조건은 그 전제들의 진리가 그 결론을 개연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 논증이 귀납적으로 강하다는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결론이 전제들에 포함된 증거와 관련하여 개연적이지 아니라는 것을(있을 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증들을 이용해야만 한다.”<sup>27)</sup>

히치콕은 전제들의 진리가 그 결론의 진리를 보장하는 논증들(전제들

26) David Hitchcock,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Informal Logic* Vol. 3, No. 2 (1980), 9쪽.

27) David Hitchcock,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8쪽.

이 참이면서 그 결론이 거짓이 되는 그 어떤 가능한 사태도 없는)과 전제들의 진리가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비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가능한 사태가 있지만, 전제들은 결론을 개연적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지지하여 유관한 이유들을 제공하는) 논증들을 그 논증 부류 내지 유형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히치콕은 자신의 접근이 결과적으로는 논증 유형의 구분을 상정케 하지 않겠느냐는 반대와 마주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나 이상의 타당성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에서 자신은 암묵적으로 소정의 논증을 위해 어떤 타당성 기준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에 확정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논증 유형 간의 연역/귀납 구분이 ‘연역적 타당성 평가 기준이 적절한 논증’과 ‘귀납적 평가 기준이 적절한 논증’ 간의 구분으로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28)</sup> 만약 우리가 설득력 있는 논증들이 연역적으로 타당하거나 귀납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한 논증을 평가하는 일에서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해당 논증을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인 것으로 분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히치콕에 따르면, 평가 기준에 의거한 논증의 분류는 주어진 논증을 최상으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표준을 채택하여 이뤄질 수 있다.<sup>29)</sup> 우리는 생략된 논증을 정당화할 기회를 세우고 해당 논증을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만들거나 귀납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전제들을 가지고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증은 연역적으로 타당하면서 동시에 귀납적으로 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혀 그에 못 미치는 설득력을 결여한 것일 수도 있다. 히치콕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논증들을 연역

28) David Hitchcock,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7쪽 참조.

29) 히치콕은 "Deductive and Inductive: Types of Validity, Not Types of Argument"에서 길보기의 논리 형식에 의해 해당 분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바로 이런 접근법인 ‘선의의 원리’에 호소하여 분류를 이뤄내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적이거나 귀납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기껏해야 잠정적인 분류로서 논증들을 상호 배타적이고 함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류들로 단정하게 나누는 온전한 분류가 아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의 분류로서는 그런 나눔이 이뤄질 수 있고 잠정적인 추론 유형의 분류는 그런 한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고두는 이런 히치콕의 입장을 더 정교화 시킨다. 고두는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구분은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들 중 하나”라고 한 레셔(Nicholas Rescher)의 주장<sup>30)</sup>에 단적으로 반대하여,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구분은 논증을 평가하는 일에서 전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두는 연역/귀납 분류가 (설혹 그 분류가 평가적 개방성과 망라적 배타성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로 ‘평가적 효용성’ 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두에 따르면, 한 논증의 적절성은 그 맥락에 의존한다. 데카르트가 확실성을 추구할 때, 전제들은 결론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의학 연구자가 새 약품이 안전하다고 논증할 때, 아주 높은 정도의 확실성이 요구된다. 일상적인 논증이라면 온건한 수준의 확신으로 족할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려고 시도할 때 그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논증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전제들이 결론에 보내는 실제적인 지지와 맥락이 요구하는 지지를 알 필요가 있다. 단, 타당성의 경우에는 맥락과는 무관하게 논증의 적절성을 결정할 수 있다.

“한 논증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우선 충분한 만큼 정확하게 전제들과 결론이 맺고 있는 관계의 실제적인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강도가 필연성이라면 해당 논증은 타당하고 따라서 적절하다. 그 강도가 필연성이 아니라면 그 실

30) Nicholas Rescher, *An Introduction to Logic*, St. Martin's Press, 1964, 60쪽 참조.

제적인 강도가 적어도 필요한 강도만큼 큰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어떤 강도가 필요한지 충분히 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실제적인 강도가 적어도 필요한 강도만큼 크다면, 해당 논증은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논증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논증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은 그 적절성과 전제들의 참 여부인 것이 아니라 한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논증 유형이 제시되는지 전혀 결정하지 않고서도 어떤 논증이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sup>31)</sup>

고두는 연역/귀납 분류법의 주창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반대를 여럿 고려한다. 첫째, 연역/귀납 분류법의 사용은 실제적 관행이라는 반대가 그것이다. 이는 포어와 고비어가 제시한 반대이기도 하다. 예컨대 포어는 히치콕이 개진한 제안에 대해서 히치콕이 논리학을 수행하는 철학자들의 실제적인 관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논증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서 철학자들은 통상 오직 그 분석 방법을 평가하고 난 연후에야 그것을 시험한다. 논증을 판단하기에 앞서 판단할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어는 이렇게 반문한다. “철학자들이 망상에 빠져서 논증이 두 범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수많은 해를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sup>32)</sup> 고비어 또한 포어에 동조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한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주위에 있어 왔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논리 교육이 조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 단순히 잘못 정초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주저하게 된다.”<sup>33)</sup>

이에 대해 고두는 추론과 논증을 구분하면서 논증이 아니라 추론이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고 믿느냐에 따라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31) G. C. Goddu,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Informal Logic* Vol. 22, No. 1 (2001), 8쪽.  
32) Samuel, D. Fohr, "Deductive-Inductive: Reply to Criticisms,"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6쪽.  
33) Trudy Govier, "More o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8쪽.

“추론은 정신적인 행위나 과정들로서 논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추론은 적어도 두 종류인 연역과 귀납으로 분리될 수 있다. A를 B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B에 기초하여 A가 참이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B로부터 A를 귀납하는 것은 B에 기초하여 A가 합당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두 추론 유형들인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우리가 결론과 전제의 관계라고 믿는 것 중 하나다.”<sup>34)</sup>

고두에 따르면, 우리가 결론과 전제의 관계라고 믿는 것은 실제 전제와 결론의 묶음으로 제시된 논증의 좋고 나쁨과는 무관하다. 우리의 믿음과 주어진 사실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논증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결론과 전제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맥락상 요구되는 관계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둘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기준의 구분은 결국 타당성이 적합한 기준인 논증과 타당성보다 덜 엄밀한 기준이 적합한 논증의 구분을 가정하고 있고 이는 곧 논증 유형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바로 히치콕에 대해 제기되었던 반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고두는 우선 한 논증이 동시에 타당성 기준이 적합한 논증이면서 그것보다 덜 엄밀한 기준이 적합한 논증일 수 있기에 평가 기준의 구분이 곧 논증 유형의 구분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수한다.<sup>35)</sup> 평가 기준의 적합성은 다만 맥락에 따른 것이다. 즉 한 논증이 타당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타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그보다 덜 엄밀한 기준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예컨대 개연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적합성은 논증 그 자체의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논증이 제기되는

34) G. C. Goddu,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9쪽.

35) G. C. Goddu,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10-11쪽.

맥락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숨은 전제를 정확히 채워 넣기 위해서는 연역/귀납 논증 유형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반대가 또한 제기될 수 있다. 프리먼(James B. Freeman)은 이런 반대를 위하여 다음 논증 사례를 인용한다. “모든 상원 의원들은 정치가들이다. 따라서 모든 상원 의원들은 비도덕적이다.” 이런 논증의 숨은 전제 후보로서 ‘모든 정치가들은 비도덕적이다’ 또는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비도덕적이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리먼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해당 논증이 연역 논증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논증이 연역 논증임을 인식하는 일은 부가할 숨거나 빠진 전제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연역/귀납 논증 유형의 구분은 논증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sup>36)</sup>

고두는 이런 반대에 대해서 논자의 의도가 논증 유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논증 평가 기준에 대한 것으로 능히 해석될 수 있다고 응수한다.<sup>37)</sup> 예컨대 누군가가 “원숭이는 모두 영장류기에 확실히 모든 원숭이는 포유 동물이다.”라는 논증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이것의 숨은 전제가 ‘모든 영장류는 포유동물이다’일 수 있음을 알기 위하여 해당 논증을 불완전한 정언삼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논자가 ‘확실하게’의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논증이 타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타당성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최소한의 전제는 ‘모든 영장류는 포유동물이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논증이 제공되는지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 숨은 전제를 부가한다.

한편 애니스에 따르면, 연역/귀납 분류법을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논증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소위 삼 단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1) 논증 식별하기, (2) 논증 분류하기(논증 유형 결정), (3) 논증 평가하기(결정

36) James B. Freeman, "Reply to Englebretsen," *Informal Logic* Vol. 6, No. 3 (1984), 39-40쪽,

37) G. C. Goddu,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14-15쪽.

한 논증 유형에 적절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논증 평가)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sup>38)</sup> 애니스는 이런 삼 단계 전략에서 논증 평가에 앞선 연역/귀납 분류의 적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심리적 접근은 잘못 의도할 수 있기에 연역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만들거나 귀납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논자가 의도하는 ‘필연적이거나 결정적인’ 지지 관계가 논리학자의 ‘필연성 내지는 결정성’과 같은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기에 논증 분석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수행적 접근도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들을 연역으로 분류할 수 없게 하고(해당 논증들은 그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참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에), 한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있어야만 그것을 연역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분류에 앞선 논증 평가를 요한다. 이런 이유로 애니스는 논증 분석/평가의 삼 단계 전략에서 두 번째 단계를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로써 그는 논증 분석 단계에 논증 평가가 개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을 요청하는 대안적인 논증 분석/평가 접근을 제안한다. (1)논증 부분들을 확인하기, (2)평가자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선의의 정도를 달리하면서 가정 귀속하기, (3)논증들을 귀납과 연역과 같은 유형들로 분류하려는 시도 포기하기, (4)가정을 귀속하고 목전의 논증을 평가하는 일에서 몇 세트의 기준들을 잇달아 적용하기, (5)특히 건전성 및 여타 (제한적 주장에 이르는) 추론 기준들을 경험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느슨하게 하기(상황에 필요한 정도로 유연하게 정확도를 조율하면서 지적이고 노련하며 넓은 견문을 가지고 판단하기).”<sup>39)</sup>

38) Robert H. Ennis, "Argument Appraisal Strategy: A Comprehensive Approach," *Informal Logic* Vol. 21, No. 2 (2001), 97쪽. 애니스는 삼단계 전략이 대표적으로 실려 있는 논리학 교재로서 코피(Irving M. Copi)와 코헨(Carl Cohen)이 공저한 『논리학 입문(1998)』을 인용하고 있다.

39) Robert H. Ennis, "Argument Appraisal Strategy: A Comprehensive Approach," 134쪽.

여기서 분석한 히치콕, 고두, 애니스는 모두 공통적으로 논증 분석 단계에서 연역/귀납 분류법의 적용이 문제가 있기에, 평가 단계에서 그에 준하는 평가 기준만을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분석 단계에서 논증 그 자체의 성격에 따른 논증 분류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평가 단계에서 논증 외적인 평가 기준의 차이에 따른 논증 분류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생각에는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가 확연하게 분리되어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만약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가 애초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히치콕 등에 따라 논증 자체의 분류가 아니라 논증 평가 기준의 분류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사후적으로 ‘연역논증’과 ‘귀납논증’ 또는 여타 논증을 구분하는 일은 전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오컴의 면도날을 고집하여 기존 논리학계에서 상용화된 연역/귀납의 분류 범주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적어도 ‘익숙한 개념 사용의 연속성’이라는 화용론적 안정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해당 분류를 어떤 식으로든(필요한 변경을 가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 3. 논증 분석 및 논증 평가에서 연역/귀납 분류법의 지위

철학사 및 과학사에서 연역/귀납의 분류법은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 없이는 철학사와 과학사에 관해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없기에 해당 분류법의 사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고두는 이렇게 응수한다. 일단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이라고 해서 그게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데카르트의 사유실체와 연장실체의 구분법이 그렇듯), 능히 그런 개념이 없이도 평가 기준으로서 연역/귀납의 구분만을 가지고서 충분히 전통에 관해 유의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sup>40)</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40) G. C. Goddu,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이와 관련하여 고비어는 논증 평가 기준의 구분에 관해서는 찬동하면서도 고두와는 달리 논증 유형 분류법의 폐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구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구분을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히치콕, 애니스, 고두 등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도 이런 고비어의 우려를 공유하며 귀납논증/연역논증의 분류법에 대한 제거주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물론 그렇다고 귀납/연역 논증 분류법에 대해 온전하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일단 제거주의에 대한 필자의 반대는 가장 핵심적으로 논증 분석과 평가가 그렇게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논증 분석과 평가는 연속선상에 있고 논증은 의도를 포함하는 맥락 속에서 제시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호 연관된 논증 분석-평가 단계에서 논증 평가 기준에 의거하고 논증의 맥락에 의거하여 연역논증과 귀납논증 등을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이런 분류는 연역/귀납에 국한된 이원적인 분류가 아니라 여타의 다른 논증 범주를 허용하는 다원적인 분류일 수 있다. 다만 이런 분류에서도 각 분류 범주에서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의 구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논증 분석/평가의 상호작용

고비어는 논증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물음들을 논증에 관한 이론인 ‘논증론’으로 담아내어 제시하고 설명하려 한다. 고비어에 따르면, 논증론은 논증의 본성과 목적을 따지며 논증 평가 기준들을 명시하고 옹호한다. 또한 얼마나 많은 상이한 논증들이 있고 각각의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이 적절한지 밝히며, 언제 그리고 왜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주장들을 읽어내는 것이 합당한지 설명할 것이다. 나아가 논자 또는 논증 수용자인 청중이 논증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것이다.<sup>41)</sup>

---

12-13쪽 참조.

존슨(Ralph H. Johnson)은 논증론을 논증분석 영역과 논증평가 영역으로 나누면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고비어의 물음들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sup>42)</sup>

[논증분석 영역]

1. 논증의 본성과 목적은 무엇인가?
2. 상이한 논증 유형들이란 무엇인가?
3. 논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논증을 재구성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논증평가 영역]

4. 논증 평가를 위한 기준들은 무엇인가?
5. 논자와 청중의 인격과 믿음이 어떻게 논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6. 전제들의 진리는 논증의 건전성을 요구하기에 너무 강한 조건인가?

그리고 존슨은 평가 이론이 분석 이론에 기초해야 하고 분석 이론은 평가 이론과 분명히 구분되면서 그에 앞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평가 이론은 분석 이론에 기초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논증이 어떻게 평가되어야만 하는가? 적절한 기준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기 이전에 우리는 우선 논증에 관한 분명하고 적절한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형식적인 연역 논리가 적절한 논증 이론을 제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분명 그 논증 개념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의 평가 이론은 우리의 분석 이론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sup>43)</sup>

과연 존슨의 지적대로 논증분석과 논증평가는 그렇게 분명히 구분될

41) Trudy Govier, *Problems i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13쪽 참조.

42) Ralph H. Johnson, *Manifest Rationality: A Pragmatic Theory of Argu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0, 38-56쪽 참조.

43) Ralph H. Johnson, *Manifest Rationality: A Pragmatic Theory of Argument*, 41쪽.

수 있는 것일까? 고든(David M. Godden) 역시도 연역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논제로서 연역주의(분석 이론)와 평가적 논제로서 연역주의(평가 이론)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든에 따르면, 평가적 논제로서 연역주의의 수용 여부는 오직 우리가 채택하기를 원하는 평가 내지 증거 기준들에 의존하고 해석적 논제로서 연역주의의 수용 여부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역적으로 논증하는지 여부에 의존한다.

“연역주의가 기술적인 수준과 평가적인 수준에서 좋은(또는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한 물음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다뤄질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다뤄져야만 한다. 연역주의가 좋은 평가적 논제인지 하는 문제는 오직 우리가 지지하기를 원하는 증거 기준들에 의존한다. 평가적 논제로서 연역주의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런 측면에서 단지 (¬)이런 기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런 기준을 지지하는 연역주의의 능력과 같은 고려사항들에 의해서만 규제되어야 한다. 한편 해석적 논제로서 연역주의의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연역적으로 논증하는지 또는 다른 기준들에 호소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는지에 의존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고려사항들에 기초하여 자신의 견해를 변화시키게 되는지에 의존한다. 한 기술적 논제로서 연역주의는 오직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이 그 주제를 묘사하는지에 의존하고, 이것은 논증에 관한 사실 만큼이나 논자에 관한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결정될 수 없다.”<sup>44)</sup>

그런데 논증의 목적이나 목표는 상이할 수 있고 그 상이한 목표에 따라 상이한 논증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동일한 논증분석 전략이 이 모든 상이한 종류의 평가를 위해 충분할 수 있을까? 상이한 논증에는 상이한 평가가 따르는 것이기에 상이한 종류의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논증은 목표 지향적 활동이고 그런 활동을 기술(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규범적인 개념을 필요로 한다.

44) David M. Godden, "Deductivism as an Interpretive Strategy: A Reply to Groarke's Recent Defense of Reconstructive Deductivism," *Argumentation and Advocacy* 41(3), 2005, 23-24쪽.

그리고 이런 규범적인 개념들이 자리할 자연스런 곳은 평가 이론이다. 따라서 분석 이론은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평가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과 모든 면에서 분리될 수는 없다.

## 2) 논증 분석-평가 단계에서 연역/귀납의 분류

앞서 고비어와 존슨은 논증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을 수 있는 물음이 “논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논증을 재구성하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는 물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숨거나 빠진 전제를 채워 넣는 일이 논증 분석 단계에서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빠진 전제를 채워 넣는 일이 논증 평가의 목적과 바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논증을 통해서 다만 논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구하거나 결론의 진리성에 대한 엄밀한 시험을 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논증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논증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하는 밑그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채워 넣을 전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가 두 단절된 기획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고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평가할 대상 논증이 미리 정해지고 목표에 따라 그에 걸 맞는 평가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 논증 자체가 목표에 따라 변화되고 그에 따라 걸 맞는 평가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역/귀납 구분이 만약 필요한 것이라면 논증 내적인 ‘논증 유형’의 구분이라거나 논증 외적인 ‘논증 평가 기준’의 구분이라고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합한 말을 붙인다면 논증 내외를 분간할 수 없는 ‘논증 평가 기준의 차이에 따른 논증 유형의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논증 평가 단계 이전에 고정된 논증 분류 단계를 설정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임을 드러낸다.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고비어가 “나는 논증의 유형들 보다는 기준 유형들을 차별화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히치콕의

의견에 동의한다”<sup>45)</sup>라거나, “나는 내 안에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구분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포어의 꺼림을 공유하는 뭔가가 있다고 고백한다”<sup>46)</sup>라고 표명할 때, 필자는 고비어가 암묵적으로 이런 길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역’과 ‘귀납’은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논리학 분야나 비판적 사고 분야에서 오랫동안 채택되어온 분류 범주다. 그 분류법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해당 분류 범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통과의 화합 및 화용론적 안정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고두는 ‘전통성’과 ‘느낌’이 결코 문젯거리 있는 연역/귀납 구분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논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연역/귀납 구분이 이미 통상적인 일로서 고착화된 사용상의 의미를 얻고 있다면 교육적 장치로서 그런 분류 범주를 잘 다듬고 그것이 지닐 수 있는 정확한 지위를 짚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원주의를 주장하는 월뱅크스도 이런 취지에서 이원주의적인 두 분류 접근과 제거주의적인 ‘그저 논증만’ 접근이 교육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문 형식논리 교재들은 제도적 배경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쓰인 것이고 이는 제도마다 다르다. 교과과정과 요구사항들은 상이하다. 한 특정한 커리큘럼 안에서 ‘그저 논증만’ 접근이 나아갈 길일 수도 있고, 다른 커리큘럼에서는 두 논증 유형 접근이 선호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sup>47)</sup>

연역/귀납 분류법에 자리한 문제 해결의 단초는 바로 논증 분석과 평

45) Trudy Govier, "Assessing Arguments: What Range of Standards?,"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3쪽.

46) Trudy Govier, "More o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8쪽.

47) Jan J. Wilbanks,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Argumentation*, 2010, 24, 122쪽.

가를 이원화하지 않는 데 있다. 분석은 평가를 요구하고 또한 분석 없이 평가가 이뤄질 수는 없다. 이는 평가 대상이 되는 논증 자체가 변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논증은 바로 ‘맥락’ 속에 주어진다든 말로 정리해볼 수 있다. 논증의 맥락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예컨대 ‘후건긍정식’의 형식을 갖는 논증에 관해 생각해보자. 논자가 해당 형식을 가지고 전제와 결론의 필연적인 관계를 의도할 경우(언제나 조건문의 후건이 전건의 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해당 논증은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것일 수 있다. 해당 형식은 흔히 원인이나 가설을 추론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이 경우 해당 논증은 앞서와 똑같은 형식을 갖지만 개연적인 관계를 목표하는 것으로 귀납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형식을 갖는 논증이지만 하나는 필연적인 관계를 의도하는 맥락에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개연적인 관계를 목표하는 맥락에 놓여 있기에 평가 대상이 되는 논증이 두 경우에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논증이 어떤 평가 기준과 연루되느냐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되는 논증의 분류 범주가 달라짐을 뜻한다. 이는 논증의 분류 범주 결정에 논증의 맥락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피셔(Alec Fisher)가 제시한 다음 사례가 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녀는 엄마다. 따라서 그녀는 아이를 출산했다.”<sup>48)</sup> 만약 이 논증이 과거 유전공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기되었다면, 연역 논증으로 간주될 것이다. 누군가 엄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똑같은 논증이 제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시대에는 시험관 수태를 통해 아기를 가질 수 있기에 누군가는 출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의 유전적 엄마일 수

48) Alec Fisher & Nicholas Everitt, "A Continuum of Inferences," *Modern Epistemology*, McGraw-Hill, 1995, 172쪽.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성립하기에 해당 논증은 연역 논증이 아닌 것이 된다. 이는 바로 논증이 주어지는 맥락적인 상황이 바로 논증의 분류 범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맥락에 따른 논증 분석 방법 및 평가 기준의 차이

맥락은 기본적으로 논증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적 기준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 논증의 맥락은 ‘논자의 의도’와 같은 다만 심리적인 요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논증의 평가 목표와 같은 것은 심리적인 의도로 환원할 수 없는 상호주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은 다만 논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증 수용자 내지는 청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증의 맥락은 논증 수용자의 이해, 논증이 제시된 상황,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 논증의 형식, 사회적 상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애니스는 가능한 평가 목표를 (1)결론이 참이거나 수용가능한지 결정하기, (2)논자나 논자의 발표 논증(논자가 제시한 대로의 논증)을 평가하기, (3)연역 증명이 연역적으로 타당한지 결정하기로 나누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를 위한 논증 분석을 이뤄낸다.

“첫째, 만약 목표가 결론이 참인지 또는 수용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이라면 논자가 제공한 이유들을 사용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편향되지 않은 논증을 구성하라. (……) 둘째, 목표가 논자나 논자의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논자가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나 마음에 품고 있는 완전한 논증을 구성하라. (……) 셋째, 만약 너의 목표가 한 정리의 필경 엄중한 연역 증명의 평가라면, 해당 논증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라. 원래의 명시적인 논증이 최종 논증이다.”<sup>49)</sup>

49) Robert H. Ennis, "Argument Appraisal Strategy: A Comprehensive Approach," 135쪽.

애니스는 이처럼 논증의 성격과 평가 목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어진 논증의 성격과 평가 목표는 논증 분석 및 평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단 평가 목표에 따라 재구성되는 논증이 달라지고 논증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연역/귀납 분류법과 관련하여 이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논증 분석 및 평가 과정에 담기기 전에 적용되는 맥락 독립적인 논증 유형의 분류법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 논쟁이 빈번한 사회윤리 영역에서 제기되는 논증을 보면 연역/귀납 분류가 극히 어려운 복합적인 논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논증이 어떤 유형인지 확연히 분류할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 논증 유형마다 그에 적합하거나 고유한 평가 방식이 알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논증이 확실히 연역 논증임이 밝혀졌다면 오직 전제 수용가능성 여부만이 평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류가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다. 또한 피셔의 주장처럼 연역/귀납의 경계선이 그렇게 분명한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sup>50)</sup> 따라서 우리는 연역/귀납의 이원적인 분류가 아니라 논증 유형을 다원화하여 논증 분석/평가와 관련해서 각각의 논증 유형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논증 유형은 미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니스가 제시한 것과 같이 평가 목표를 포함하는 맥락적인 고려에 결과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것일 수 있다.

---

50) 피셔는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 구조의 다양성을 섬들을 잇는 다리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섬들을 잇는 다리들은 저마다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두 다리 구조를 주장하는 이들은 안전한 다리가 오직 두 다리 구조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상 다리의 안정성은 아주 안전한 다리에서 아주 불안정한 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피셔에 따르면, 전체가 결론과 맺고 있는 추론 구조 또한 마찬가지다. Alec Fisher & Nicholas Everitt, "A Continuum of Inferences," 165-166쪽 참조.

#### 4. 평가 사후적인 다원주의적 논증 분류의 의의

애초 논증 분류가 평가적 개방성, 망라적 배타성, 평가적 효용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데서 논의를 출발시켰다. 사후적인 다원주의적 논증 분류가 어떻게 이런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평가 사후적인 논증 분류법은 일단 평가의 다양성 내지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인정하는 데서 분류 범주의 문을 열어놓아 망라성의 요구에 응답한다. 어떤 분류든 적합한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독자적인 분류 범주가 될 수 있기에 이는 모든 논증을 망라하고, 그런 범주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경제성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또한 논증 분류의 범주가 평가 이전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서 평가 목표를 포함하여 논자의 의도 등을 담고 있는 맥락이 분류 범주 결정에 큰 역할을 하기에 한 논증을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느 한 분류 범주에 속하도록 할 수 있어 배타성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논증의 맥락에 담기는 논증의 목표나 의도는 다만 논자에 속하는 사적이거나 주관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제삼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이거나 객관적인 영역의 것일 수 있다. 사후적인 다원주의적 논증 분류는 그런 맥락을 적극적으로 분류 범주의 결정에 도입하기에 한 분류 범주에서 좋고(그 목표나 의도에 부합하는) 나쁘(해당 목표나 의도에 어긋나는) 논증의 여지를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어 평가적으로 개방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증 분류에 관한 다원주의적 접근은 다양한 평가 목표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논증을 분류하기에, 논증에 대한 일상적인 관점과 논리학자의 관점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 논증론에 가장 어울리는 것일 수 있다.

평가 사후적인 다원주의적 논증 분류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인 추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해볼 수 있다. 예컨대 고비어가 제시한 ‘(전제

와 결론의) 관련성'과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충분성'을 그런 기준으로 도입해볼 수 있다.<sup>51)</sup> 이런 기준들은 건축물의 유비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기초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요건은 '아귀가 맞음'과 '충분한 강도'이다. 마찬가지로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제와 결론이 적절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제 이런 관련성 기준과 충분성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의 지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건물과 그 기초의 아귀가 맞는 방식이 여럿 있을 수 있는 만큼이나 논증의 전제가 결론과 적절하게 관계 맺는 방식에도 연역적 함축의 관계, 귀납적 지지의 관계, 유비에 의한 지지의 관계, 수렴에 의한 지지의 관계, 가설추리에 의한 지지의 관계 등 다양한 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의 기초가 건물을 다양한 강도로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이나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성의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연역적 함축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완전하고 결정적인 충분성을 요구하지만, 귀납적 지지의 관계는 그보다 덜한 충분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충분성은 또한 논증이 주어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형사 사건에서 제기되는 논증과 민사 사건에서 제기되는 논증은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수렴에 의한 지지 방식을 똑같이 취하고 있지만, 그 요구되는 충분성의 정도에서 서로 다르다. 예컨대 형사 사건에서는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성을 요구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저울질해보아 아마도 그럴 것 같은(50%보다는 높은)' 충분성을 요구한다. 또한 일상적인 논증에서는 다만 '온건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약하거나 낮은 충분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논증 유형이 성립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접하고 논증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의견에 관해 늘 새로 배워나

51) Trudy Govier, "When Is an Argument a Good One?,"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63-91쪽 참조.

갈 수 있다.

## 5. 결론

연역/귀납의 분류에 관한 접근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그 각각이 갖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어느 방식이든 연역/귀납 분류법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상당부분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를 이원화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역/귀납의 분류법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의 논리 또는 비판적 사고 관련 학습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개념이다. 논리 교육과 관련하여 그 목표, 내용, 방식에 많은 이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정착된 개념은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체계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또는 개념 사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이는 그런 개념이 갖는 주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다.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는 서로 유리되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이를 감안한다면 논증 분석과 논증 평가 모두에서 함께 작용하는 연역/귀납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컨대 우선적으로 논증 분석 단계에서 논증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예컨대 결합에 의한 방식과 수렴에 의한 방식)만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논증의 목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숨은 전제를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관련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논증 평가를 이뤄내고 적용한 기준에 따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등을 분류한다. 물론 이 과정은 되풀이되고 뒤섞일 수 있지만, 평가에 앞선 내지는 평가와는 무관한 논증 자체의 유형 분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논증 고유의 연역/귀납 분류법이 갖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원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역과 귀납의 분류 범주를 인정하고 전통적으로 연 구되어온 연역과 귀납의 특성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어 해당 논증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피할 수 있기에, 전통과의 연속성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애초에 ‘연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논리 수업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오직 연역만(연역주의)을 표방하거나 연역/귀납만(귀납주의)을 표방하거나 어느 쪽이든 ‘연역’에 대한 연구 내지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연역 이외에 귀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귀납’은 연역이 아닌 것으로 결국 연역에 의거하여 부정적으로 정의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역에 대한 정의가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담아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일상의 논증 유형들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에서 이뤄지는 논리 관련 수업은 대개 코피나 새먼 등의 형식적 정의에 기초한 연역 논리 체계에 대한 학습이 교과 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 대학들이 정식으로 개설되는 <논리학> 관련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를 가지고 있다면 연역을 위주로 하는 수업이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이뤄진다는 것은 앞서 연역주의에서 강조한 교육 효과만을 보아도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학제를 전혀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논리 교육자들은 한 학기 수업으로 학생들이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관한 이해를 갖게 인도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논리적/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로 이끄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모색은 체계적인 논리학 학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적 인식으로 이끄는 유일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한 학기 수업에서 형식적인 논리 체계에 대한 수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나마 한 학기 개설되어 있는 논리 수업도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하여(일상적인 논증이나 문제(또는 전공과목과 연계되는 논증이나 문제)를 다룬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큰 괴리를 보여 무용하거나 불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됨으로써) 그 존폐를 논하게 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평가 목표를 포함하는 맥락에 의거한 다원주의적 논증 분류 방식에 따르면 특별히 ‘연역’에 초점을 맞춰야 할 이유란 전혀 없게 된다. 논증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또한 논증 분류 범주의 다양성이 인정될 것이다. 모든 논증 범주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질 것이고 그런 특성이 파악되며 또한 해당 범주에 속하는 논증의 다양성에 맞춰 새로이 개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논증에 대한 탐구 내지 논증론은 어느 한 범주에 편향됨이 없이 다양한 논증 범주들을 균등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범주들을 가지고 일상적인 논증과 전문 영역의 논증을 모두 포괄하여 논의함으로써 자연스런 논증 활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논리적 사고 내지는 비판적 사고가 자신의 삶 내지는 학문 활동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논증 분류와 관련하여 일원론과 이원론을 넘어서 다원주의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보게 된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김광수, 「비판적 사고론」, 『철학연구』, 58집, 2002, 5-42쪽.
- 박준호, 「논증의 종류와 평가의 기준 -비판적 사고와 형식 논리학의 의의」, 『범한철학』, 42집, 2006, 273-296쪽.
- 하병학, 「학제적 학문탐구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논증론」, 『철학연구』, 58집, 2002, 61-73쪽.
- Bowles, George,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16, No. 3 (1994), 159-184쪽.
- Copi, Irving & Cohen, Carl, *Introduction to Logic*,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1998.
- Ennis, Robert, H., "Argument Appraisal Strategy: A Comprehensive Approach," *Informal Logic* Vol. 21, No. 2 (2001), 97-140쪽.
- Fisher, Alec., *Critical Think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 Press, 2001.
- Fisher, Alec & Everitt, Nicholas, "A Continuum of Inferences," *Modern Epistemology*, McGraw-Hill, 1995, 164-178쪽.
- Fohr, Samuel, D.,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Vol. 2, No. 2 (1979), 5-8쪽.
- \_\_\_\_\_, "Deductive-Inductive: Reply to Criticisms,"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5-10쪽.
- Godden, David M., "Deductivism as an Interpretive Strategy: A Reply to Groarke's Recent Defense of Reconstructive Deductivism," *Argumentation and Advocacy* 41(3), 2005, 168-183쪽(reprinted, 1-26).
- Goddu, G. C.,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Distinction in Logic," *Informal Logic* Vol. 22, No. 1 (2001), 1-17쪽.
- Govier, Trudy, "Alternative to Inductive-Deductive Paradigm," *Informal*

- Logic* Vol. 1, No. 2 (1978), 4쪽.
- \_\_\_\_\_, "Challenge and Response: Carl Wellman," *Informal Logic* Vol. 2, No. 2 (1979), 10-15쪽.
- \_\_\_\_\_, "More on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7-8쪽.
- \_\_\_\_\_, "Assessing Arguments: What Range of Standards?,"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2-4쪽.
- \_\_\_\_\_, *Problems in Argument Analysis and Evaluation*, Dordrecht: Foris, 1987.
- \_\_\_\_\_,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1999.
- \_\_\_\_\_,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 Groarke, Leo., "Deductivism Within Pragma-Dialectics," *Argumentation* 13, 1999, 1-16쪽.
- Hitchcock, David, "Deductive and Inductive: Types of Validity, Not Types of Arguments," *Informal Logic* Vol. 2, No. 3 (1979), 9-10쪽.
- \_\_\_\_\_, "Deduction, Induction and Conduction," *Informal Logic* Vol. 3, No. 2 (1980), 7-15쪽.
- Johnson, Ralph, H., *Manifest Rationality: A Pragmatic Theory of Argu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0.
- Rescher, Nicholas, *An Introduction to Logic*, St. Martin's Press, 1964.
- Vorobej, Mark, "Defining Deduction," *Informal Logic* Vol. 14, Nos. 2&3 (1992), 105-118쪽.
- Weddle, Perry., "Inductive, Deductive," *Informal Logic* Vol. 2, No. 1 (1979), 1-5쪽.
- \_\_\_\_\_, "Good Grief; More on Deduction/Induction," *Informal Logic* Vol. 3, No. 1 (1980), 10-13쪽.
- Wilbanks, Jan J.,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Argumentation*, 2010, 24, 107-124쪽.

## **Critical Study on Classification of Deduction and Induction**

Kyung-Nam Hong

We have frequently taken deduction/induction dichotomy with our education of logic, but any plausible reasons for such taking were not given.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of reasonable argument classification, such as evaluative openness, exhaustive exclusiveness, and evaluative effectiveness, and two accounts for the deduction/induction dichotomy based on psychology and achievement, which do not satisfy one or two of those requirements. Trials were made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by selecting any one of the two methods, such as deductivism, inductivism, and modified inductivism. Such trials turned out to be failed, and so, eliminativism that eliminates the deduction / induction classification from the start is tested. With the testing of the eliminativism is it noted that argument analysis and argument evalu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completely separated projects. In case we understand the contextual interaction of the argument analysis and the argument evaluation, the adoption of the post-evaluative deduction / induction classification can avoid or solve the argument dichotomy-related problems. And it is claimed that the pluralistic argument classification, not the monistic or the dualistic, should be rightly granted, at which we as theorists of argument should aim.

**Key words:** Deduction, Induction, Argument Classification, Deductivism, Inductivism, Pluralism

연역과 귀납의 분류 / 홍경남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02월 20일
심 사 일	2012년 05월 12일
계재확정	2012년 05월 21일